

요 약

본 연구를 통해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역사와 오늘의 상황 속에 체현된 선교의식에 대해 살펴본다. 기독교미술의 정체성을 말씀의 체현이라는 시각으로 조명해온 연구자는 선교의식 역시 말씀에 대한 청중에서 비롯하고 있으며 그 반응이 현장의 실천적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기독교미술과 선교의식을 다루었다. 말씀을 시각적 이미지로 체현하는 작업은 1)말씀의 선포와 증언, 2)말씀 진리의 변증, 3)말씀의 실천과 참여, 세 가지 범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미술선교를 지향하는 사역적 작품은 일차적으로 말씀을 시각적으로 체현하여 증언하고 선포하는 성격을 가지며 복음을 위한 미술을 지향한다. 말씀의 실천과 참여로서 미술선교는 버려지고 황폐한 땅, 낮은 곳을 향하는 하향성의 시선으로 세상의 소외된 곳, 복음이 비취지 않은 어두운 땅, 열방의 다문화 세계로 나아가는 사역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기독교미술 작가들의 선교 의식은 한국교회의 세계선교가 부흥과 성장하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미술선교단체가 출현하여 공동체적 사역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미술 선교 단체로 한국미술인선교회, 아트미션, 대구기독교미술선교협회의 출현과 활동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단체의 활동 배경 속에서 특별한 소명에 응답하는 작가들은 해외의 사역으로 체현의 장을 확장하기에 이른다. 선교적 교회와 선교단체가 미술선교를 위한 토양이라면 선교적 작가는 그 토양에서 자란 나무라 할 수 있으며, 미술선교 사역은 선교적 작업의 열매로서 다시 척박한 땅에 뿌려진 씨앗들인 것이다.

미술선교 단체들의 후원과 협력, 동역을 통해 타문화권에서 사역한 미술선교사들의 현장 사역으로 유럽 F국에 파송되어 작품을 창작과 전시, 설치를 통한 복음전도자의 삶을 살아온 P국제예술포럼의 사역, 현재 I국에서 미술교육을 통해 기독교세계관과 복음을 확산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L선교사의

* 본 논고는 2020 크리스천 아트포럼에서 발제한 <한국 기독교 미술에 체현된 선교의식과 사역의 현장>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미술교육 사역, C국에서 체류하면서 미술교육과 문화교류의 장을 지켜가며 벽화사역을 통해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Y선교사의 사역과 유럽 F국에 유학 후 장기간 체류하면서 한국문화와 복음을 전하며 선교단체를 섬기는 K선교사의 사역을 살펴보았다. 현장의 미술사역의 유형은 크게 1) 작품 창작과 전시 발표를 통한 복음전도, 2) 미술교육을 통한 기독교 문화관과 복음의 확산, 3) 문화교류와 현지의 환경의 개선 등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었다. 본 논고를 통해서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이 갖는 선교적 영향력을 검토하고 미술선교 단체와 미술선교사의 활동과 사역, 현장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미술선교의 역사와 현장 이해를 넓혀 감으로써 한국선교가 미술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 서론: 복음을 위한 미술, 미술을 위한 복음

기독교미술은 선교적인가? 선교적인 미술이 곧 기독교미술인가? 선교적인 미술은 무엇이며 어떻게 창작되어 지는가? 기독교미술과 선교에 관한 논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떠오르는 질문들이다. 이러한 한 질문에 대해 답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기독교미술과 선교에 대한 정의나 이해가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미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작가에 따라서, 그룹과 단체에 따라서 다양한 주장이 있다. 선교에 있어서도 원론적인 정의를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역이 존재한다. 그래서 선교사의 신분과 정체성에 관해서도 의견이 상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선교사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이나 이해의 차이에 따라서 A라는 한 선교사를 의심 없이 선교사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교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흔히 전문인 선교사의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미술인선교사 역시 전문인선교사로서 예외가 아닐 것이다.

기독교미술의 범주에 대한 판단도 간단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본 논고에 앞서서 연구자는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현실인식과 조형적 체현>을 연구논문의 주제로 다룬 적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 다룬 ‘통일과 평화’, ‘환경과 생태’ 같은 소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기독교미술을 말씀의 체현이란 시각에서 조명한 후에 그 실천적 미술사역의 현장 작업과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예술 선교의 한 영역으로서 미술선교가 갖는 긍정적인 역할과 영향력을 이해하고 짚어볼 수 있었으면 한다. 이 작은 시도가 ‘복음을 위한 미술’과 ‘미술을 위한 복음’을 위해 작업하며 사역하는 기독교 미술 작가들과 미술선교사들을 격려하고 미술선교를 담당할 다음 선교 세대에게 교훈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 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논고가 한국 기독교 문화신학과 선교신학의 지평을 넓히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II. 기독교미술과 말씀의 체현

연구자는 한국 기독교미술의 핵심적인 성격을 체현(Embodiment)의 미학이란 관점으로 조명해 왔다. 체현(體現, embodiment)이란 ‘몸을 입는다(embody)’ ‘몸으로 변한다’는 뜻으로 신학의 용어인 성육신(incarnation, 肉化)과 유사 개념으로 종교적 의미를 배제한 순수한 조형의 언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말씀 체현의 기독교 미술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성육신을 원형으로 하며 성육신의 모델을²⁾ 지향하며 추구한다. 여기서 기독교 미술의 강조점은 로고스만이 아니라 체현된 물질과 형상의 세계 또한 동등하게 중요시 된다. 즉 말씀의 체현으로서 기독교 미술은 현대 미학자들이 말하는 몸과 살, 감성과 감각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이성과 감정, 로고스와 이미지의 균형을 이루는 조형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학적 로고스의 체현은 서구의 정신사 속에서 오랫동안 우위를 점했던 철학적 이성의 진리미학과 함께 근대 이후 힘을 얻은 감성의 미학과 형식미학을 포괄하고 있다.(오의석, 2013: 22)

말씀을 시각적 이미지로 체현하는 작업은 1) 말씀의 선포와 증언, 2) 말씀 진리의 변증, 3) 말씀의 실천과 참여, 세 가지 범주로 대별된다. 미술선교를 지향하는 사역적 작품은 일차적으로 말씀을 시각적으로 체현하여 증언하고 선포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리고 말씀의 시각과 눈으로 세상의 만물을 조명하고 표현하는, 즉 기독교세계관으로 역사와 현실, 인간, 자연, 환경 등 일체의 만물을 다루는 확장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 말씀의 실천과 참여로서 미술선교는 온 세상 만물 가운데서도 버려지고 황폐한 땅, 낮은 곳을 향하는 하향성의 시선으로 세상의 소외된 곳 복음이 비취지지 않은 어두운 땅, 열방의 다문화 세계로 나아가는 사역이라 할 수 있다.

III. 기독교미술과 선교의식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2015년에 아트미션(Art Mission)과 한국미술

2) 성육신 모델은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 그의 저서 『The Secula Saint』 (이승구 역, 기독교 문화관, 1989)에서 성경과 교회사에 나타난 문화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의 모델로 분리모델, 동일시 모델, 변혁 모델을 제시하고 각 모델이 갖는 성경적 역사적 진리를 하나의 수미일관한 체계로 묶어 새로운 모델로 제안한 문화모델이다.

인선교회,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세 단체는 연합하여 <한국기독교미술의 50년전> 기념전시를 열었고, 학술심포지엄에 발제된 논고들을 묶어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50년> 책자를 발간하였다. 편저의 제1부에서는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전개과정을 개괄하였는데, 한국화, 조각, 서양화, 서예 등 각 분야를 국내 미술사가와 미술이론가들의 논고로 정리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서구의 현대 기독교 미술과 중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기독교 미술을 정리 소개한 논고를 실어서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과 비교하면서 서로의 특성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 기독교미술의 역사와 현재적 상황을 정리한 이와 같은 논고들은 주로 연대별, 지역별 연구이거나 서양화, 동양화, 회화 조각, 서예와 같은 장르별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역사의식, 현실의식, 선교의식과 같은 주제별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특히 선교의식은 기독교 미술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질 수 있는 주제이나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음을 발견한다.

이미 1995년에 한국미술인선교회는 ‘기독교미술과 선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연구 발표된 논문들을 <기독교와 미술, 예영,1996>로 출간하였다. 그 중에 연구자의 논문 <창조·타락·구속의 미술>은 미술을 기독교 세계관의 시각으로 조명한 것으로 연구자는 논문에서 건강한 문화신학의 필요성, 기독교 미술공동체의 역할, 세계관으로서의 미술론, 기독교세계관의 구조, 창조, 타락, 구속과 회복의 관점에서 미술을 살펴보고 기독교미술과 선교의 기초로 문화명령과 선교명령,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성, 청지기 의식, 종의 자세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연구의 결론을 10개항의 ‘기독교미술선언’³⁾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기독교미

3) 기독교 미술 선언

하나. 우리는 고백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은 만물의 전 구조를 이해하고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경적 대안임을 믿고 고백한다. 우리의 미술도 창조·타락·구속의 틀 안에서 조명됨으로써 그 실체 밝혀질 수 있음을 선언한다.

둘.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창조적 조형 활동의 원형이 된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창조에 앞서는 근원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모형임을 믿는다.

셋. 우리는 직시한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계를 왜곡시켰으며 하나님이 주신 조형적 창조력도 오용되기 시작하여 바벨탑과 금송아지로 대표되는 인류 역사의 조형적 실패에 이르렀음을 주목한다. 그리고 우리는 긴장한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조형을 통한 이상 숭배적 문화의 건재함과 위용을 보며 우리는 탄식한다.

넷. 우리는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 부활을 통해 미술 또한 창조의 원리와 질서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미술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는 형상의 제작에 드러질 수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구도(求道)의 일로 미화될 수 없고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숭배 받을 수 없음을 선포한다.

다섯. 우리는 알고 있다. 구속의 미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한 미술을 의미한다.

술 선언'은 1995년 10월 11일, 한국미술인선교회가 주최한 '기독교 미술과 선교'라는 주제의 심포지움(1995. 10.11.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본 연구자의 논문 <창조, 타락, 구속의 미술 — 미술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의 조명>의 요약과 결어를 10개항의 선언 형태로 발표한 것이다. 당시 연구자는 2000년이 이르기 전까지 이 초안적 성격의 선언문이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21세기 기독교 미술의 새 장을 열어 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그러나 별다른 논의와 검증의 과정을 갖지 못하고 학술발표회 연구진의 공저, 기독교와 미술(예영, 2006)에 수록 출간되었고 한국미술인선교회가 매년 발행하는 연회지인 <아름다운 달란트>에 수 년간 실렸다. 이 선언은 기독교 세계관의 시각으로 조형미술의 바람직한 모습을 설정해 보기 위해 문화의 변혁자로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며, 미술에 대해서도 창조, 타락, 구속의 구조 속에서 그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 결과이다.

IV. 미술선교단체의 선교사역

한국미술인선교회는 1992년에 한국문화예술인연합회의 미술분과 성격으로 출발하여 한국 미술협회 안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한국교회의 세계선교

그리스도의 주권이 역사한 구속의 미술을 우리는 기독교 미술이라고 부르며 그 미술은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의 구조 안에서 회복되어 가는 미술이다.

여섯. 우리는 두 가지의 명령 안에서 살고 있다.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은 우리가 함께 수행해야 할 명령이다. 두 명령은 대립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이다. 우리의 과제는 두 명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령을 어떻게 조화롭게 성취시키느냐 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일곱. 우리는 감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으며 우리의 창조성은 그 형상의 대표적인 한 부분임을 인식하며 감사한다.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가능한 우리의 창조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의존적이며 또는 제한적임을 시인한다.

여덟. 우리는 책임을 통감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한다. 우리의 창조성은 하나님이 맡기신 재능과 재료와 시각 환경을 책임 있게 개발하고 가꾸는 청지기 정신에 의해서 발휘되어야 한다고 결단한다.

아홉. 우리는 헌신한다. 우리는 우리의 미술이 무엇으로 드러져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람들을 위하여 종으로 부름 받았기에 우리의 미술도 그들을 섬기는 종노릇의 한 표현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을 종으로 드린다.

열. 우리는 소망한다. 우리의 미술 속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며, 그분이 주신 명령의 수행자로서, 책임 있는 청지기로써,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 가는 미술의 집은 하나님이 창조 우리에게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도성에 정화된 모습으로 편입될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고대한다. 김병중 외, 『기독교와 미술』 (서울:예영, 1996), pp. 195-197.

부흥기에 선교에 대한 부담과 열망을 가진 미술인들의 단체가 출현된 것이다. 초창기에 미술인들을 위한 선교 저널로 「아름다운 달란트」 창간 발행하였고, 1993년 제1회 대한민국미술대전을 공모전으로 개최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대한민국기독교 미술대전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히 하는 작가들을 발굴하여 한국기독교 미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한국 미술선교의 역사에서 한국미술인선교회 해외선교부(KAMAN) 사역은 주목해 볼만한 것으로 1998년 11월 인도의 뭄바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한국미술-1998전」을 시작으로 2000년 4월 독일 쾰른에서 가진 「한국 기독교인 미술전 2000 전」, 태국의 단기선교 사역에 이어서 베트남 비라카미선교회와 협력한 기독교미술 순회전, 2001년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선한 사마리아인회’ 초청으로 이루어진 「Love Andrew Art Show」, 2002년 한인 미국이주 100주년 하와이선교대회 초청 기독교미술인전, 2002년 인도 L선교사의 요청으로 남인도 벵갈로에서 개최된 「The Lamp of The East」 전을 통한 한-인도의 문화교류가 있었다.

2003년에 우즈베키스탄 ‘한-우즈 우정의 예술제’ 행사에 참여하여 수도 타슈켄트국립미술관에서 전시를 가졌으며, 2005년에는 프랑스 P 미술선교사의 초청으로 마르세이유 보베시 시청 홀에서 개최한 ‘A La Lumiere De La Vi’ 전과 함께 프랑스 단기선교에 참여하였다. 세계선교대회(World Mission Korea 2006)와 대한민국문화예술선교대회가 열린 2006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태국, 파키스탄, 카작스탄 선교사들의 초청으로 단기사역들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유명애, 33-35)

이상의 전시와 활동 자료들은 2006년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페스티벌 오픈 포럼의 강의안 ‘기독교 미술과 선교 -국내외 선교의 실례를 중심으로-’에서 발췌 정리한 것으로 한국교회의 세계선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확장되는 시기에 기독교미술 작가들이 미술인선교회의 KAMAN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미술사역에 헌신하고 동역했음을 보여준다.

1998년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창립 당시 선교의식을 분명히 드러낸 아트미션은 2000년 제1회 크리스천 아트포럼을 개최하였고, 2002년 아트미션으로 개명한 이후로 정기전과 함께 선교를 위한 다양한 자선전을 열면서 2003년 이후로 매년 크리스천 아트포럼을 개최하며 기독교미술론의 모색과 정립을 위해 힘써왔다. 2018년 아트미션 20주년 기념집 「소망, 기억하다」 실린 논고와 출판작들은 미술의 구속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으며, 미술인선교회의 해외 사역과 달리 아트미션의 선교적 지향은 세속 미술계의 구속과 회복, 문화의 변혁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한국미술인선교회의 KAMAN의 사역이 ‘복음을 위한 미술’을 지향하고 있다면 아트미션은 ‘미술을 위한 복음’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진정한 예술

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는 카이퍼의(Abraham Kuyper)의 말이 진실이라면 복음을 위해서도 예술이 필요하지만 예술을 위해서 복음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일 수 있다.

미술선교 단체는 수도권 대형교회 안에서도 미술인들의 연합 공동체로 결성되어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방의 대도시 단위로 모임결성과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연구자가 현재까지 회원으로 활동하는 대구기독교미술선교협회는 1989년 대구기독교미술인회로 창립되어서 활동하다가 한국교회의 선교 부흥기에 미술선교협회로 개명하고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와 대구경북 홀리클럽의 후원 속에서 활동을 펼쳐 왔다. 중국 작가들과의 교류전 등을 통해 선교에 대한 관심을 키워오던 중 K 미술선교사 가정을 C국에 파송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C국의 작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시와 문화교류를 통한 사역에 집중하였으며 지난 2019년에 창립 30주년 기념전을 열었다.

V. 미술선교사와 미술사역의 유형

1. 작품 창작과 전시를 통한 복음전도

한국 대표적 보수 교단의 미술선교사로 유럽 F국에 파송되어 20년 이상을 창작과 전시를 통해 복음의 가교 역할을 하는 P선교사는 1977년부터 2011년까지 F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예술을 통한 복음전파에 주력하였다. 그의 작품 전시 장소는 샤르트르 시청, Ste-Marie 가톨릭 사립학교, 파리 디아코네스 병원, 성 조셉수도원, 돌로스호(OM) 선상, 튀 La Port Ouverte 정원, 바스티유 광장 등 미술관과 갤러리가 아닌 관공서, 학교 병원, 수도원, 배의 선상, 정원과 광장에서까지 이루어 졌다.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장소와 복음을 들어야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작품을 전시하고 복음을 소개하는 열정을 보여주었고, P 선교사의 전시 영역은 프랑스에 머물지 않고 스페인 마드리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독일의 베를린 등의 초청을 받아 확장되었고, 전시만이 아니라 프랑스 청년들을 위한 예술 캠프, 프랑스 개신교 지도자 모임에서의 작품 해설과 선교단체의 정원 장식 등 순수한 창작과 전시 이외의 선교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12년 귀국한 이후 현재까지는 국제 예술사역 선교사로서 국내외의 여러 교회에 내외부 장식 작업과 작품의 영구전시로 복음미술관을 꾸미고 후진의 미술선교 동원과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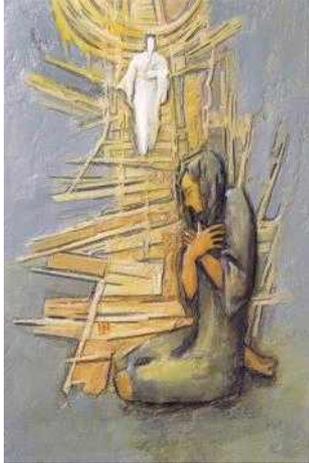


Figure1 박신희, 탄생,
45x30cm 석반석에 조각,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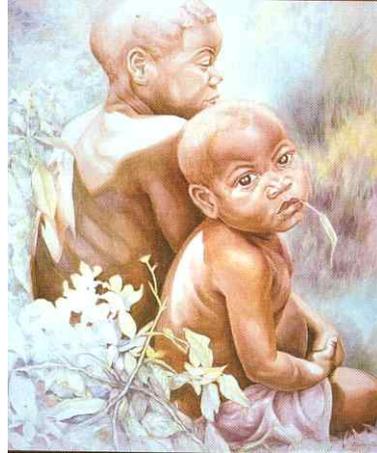


Figure2 이정희, 갈망,유화,
76x91cm,1995

2. 미술교육을 통한 복음의 실천

I국에 파송되어서 대학생과 어린이 미술교육을 담당하며 소명의 삶을 담당하는 L선교사는 1884년까지 국내의 미술교사직을 사임하고 1985년 국제선교단체의 훈련을 받고 2005년 미술학교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I국의 특정지역을 품고 수차에 걸쳐 Outreach 사역을 진행해 왔다. 2015년부터 현지에 정착하여 대학 내의 한국문화원 사역과 대학생과 어린이 미술교육, 미술교사 양성, 지역주민을 위한 어린이, 어른 미술 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 작품으로 미술전시회를 열며 대학 내 거리 전시회와 한국어 교육 등으로 지역민을 섬기고 있다.

연구자와 L 선교사는 몇 차례 동역의 기회를 가져 왔는데 처음 L 선교사를 만난 것은 1990년대 중반 청년대학생들의 기독교 미술 연구와 창작 열망이 뜨거웠던 시기에 열린 크리스천미술대학생 연합캠프로 기억된다. 1999년에는 C국의 K시에서 열린 국제 예술 축제(I. F. A)에 한국의 작가들이 팀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전시와 강의를 통해 동역하였고, 2005년에 개척한 미술학교에서 초청 강의로 섬겨 오던 중 2007년 I국의 지역 대학에서 수행한 워크샵 프로그램에 동행하며 협력하였다. L선교사의 사역은 어느 곳에서든 미술교육이라는 소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술교육이 부재하고 열악한 상황의 나라와 지역에 미술사역 지도자들을 세워가고 있다.

3. 문화교류와 벽화를 통해 품는 세계선교

현재 C국에서 거주하면서 단기선교의 형태로 매년 지구촌 여러 지역에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벽화 작업등으로 문화적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Y선교사는 섬유패션디자인을 전공한 텍스타일 디자이너이다. C국의 대학에서 벽화를 수학한 후 미술교사로 가르치며 미술학원을 운영, 후진을 양성하며 문화교류에 기여하면서 사역하고 있다. Y선교사가 결성하여 사역하고 있는 단체는 C국과 C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미술에 재능을 가진 책임감 있는 학생들과 문화 예술에 관심자들의 모임으로 예술을 통해 C국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며, 기독교적 문화 형성을 위해 예술의 씨를 뿌리고자 한다. 과학기술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한 실무 경험을 중심의 디자인 역량을 키우고 전공과 재능기부를 통해 디자인을 설계하고, 봉사를 실천하는 나눔에 동참하며, 적성과 진로를 탐구하고 훈련하여 이 시대의 문화예술가로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세워가고 있다. 특별히 벽화 봉사 및 미술 관련 봉사 활동에 적극적 참여하여 의미 있는 선교사역을 실천해 오고 있는데, 2015년과 2017년 B국의 학교 공사 및 벽화 작업과 어린이 캠프를 시작으로, B국과 U국에 사영리 웹툰을 제작하여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며 선교하였으며, 2018년 C국의 소학교 환경 프로젝트를 봉사 활동으로 진행하고 한국과 U국 C국의 국제 교류전을 열면서 U국의 빈민가 마을의 벽화 작업과 현지 어린이 캠프 사역을 수행하였다.

단기간 현지에서의 벽화작업은 위험과 어려움이 따르는 미술사역이다. 참여한 멤버들은 건축공사와 동시 진행되는 작업 환경의 위험, 수도와 전기가 없는 여건에서 물의 공급과 야간 조명의 어려움, 재료와 도구의 도난과 부실한 장비로 인한 부상 등, 상상하기 어려운 현지의 상황을 나누고 있다. 그럼에도 벽화작업이 갖는 사역적 효과는 빈민가 마을이 깨끗하고 밝은 생활환경으로 변모되어 범죄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으며, 둘째, 마을 사람들과 특히 어린이들이 지역사회 환경의 변화를 통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밝은 미래의 꿈을 꾸게 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도시와 마을 재생 활동에 예술가들의 창의성을 접목하는 공공미술의 효과는 주변 환경의 개선을 통해 유명 관광지로서 마을이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사회 개발 사역의 모델이 되기도 하며, 벽화작업은 완성된 결과물보다는 함께 동참하는 현지인들과의 과정에서 얻은 친밀함과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행복감과 공동체 의식을 이끌어낸다는 점을 들고 있다.



Figure3 류호선, 벽화



Figure4 김영숙, 묵, 상 1 ,
영천창작스튜디오, 2018

4. 기독교 세계관이 담긴 문화예술

유럽의 F국에서 유학하고 현지에서 정착하여 한국문화와 복음을 전하는 K선교사는 F국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나라이며 복음이 필요한 문화적 상황임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F국은 선교지입니다. 불어권 아프리카 나라들이 15% 정도가 개신교인데 반해 F국은 개신교가 1-2%에 불과하고 이슬람은 10%을 넘었고 가톨릭은 국교라고 하나 거의 전통과 수도원 신앙만 남은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인본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라이시떼, 즉 정교분리와 종교의 평등으로 전도활동은 실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기도 편지에는 그런 가운데도 F국의 개신교 교회는 외국인 이민자들의 교회 신앙인들의 숫자와 더불어 조금씩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오고 있다. K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고 싶은 소망이 미술의 전공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고 유학생생활을 통해 예술과 신앙이라는 주제가 삶의 관심과 기도가 되었을 때 무신론 배경의 철학과 미학의 가르침으로 P대학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림의 논문을 마친다. 그리고 세계적 예술문화의 도시로, 열방이 모여 있는 다인종 사회 환경으로 자신을 부르신 뜻을 발견하고 예술문화 선교사로 헌신하기에 이른다.

K선교사는 화려한 문화적 외형과 달리 복음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이 담긴 문화예술'을 꿈꾸며 F국의 문화회복과 변혁을 위해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다. 미술 문화의

사역은 이처럼 미술문화와 교육의 불모지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같은 미술문화의 중심지에서도 더욱 절실한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I. 요약과 결어

한국 현대기독교 미술의 역사와 오늘의 상황 속에 체현된 선교의식과 현장의 사역을 살펴보았다. 기독교미술을 말씀의 체현이라는 시각으로 조명해온 입장에서 선교의식 역시 말씀에 대한 청중에서 비롯하며 그 반응이 현장의 사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미술과 선교의식은 깊은 관련을 갖는다. 말씀을 시각적 이미지로 체현하는 작업은 1)말씀의 선포와 증언, 2)말씀 진리의 변증, 3)말씀의 실천과 참여, 세 가지 범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미술선교를 지향하는 사역적 작품은 일차적으로 말씀을 시각적으로 체현하여 증언하고 선포하는 성격을 갖으며 복음을 위한 미술을 지향한다. 말씀의 실천과 참여로서 미술선교는 버려지고 황폐한 땅, 낮은 곳을 향하는 하향성의 시선으로 세상의 소외된 곳, 복음이 비취치지 않은 어두운 땅, 열방의 다문화 세계로 나아가는 사역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기독교미술 작가들의 선교 의식은 한국교회의 세계선교가 부흥과 성장하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미술선교단체가 출현하여 공동체적 사역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서 특별한 소명에 응답하는 작가들의 해외사역으로 확장되어 진다. 선교적 교회와 선교단체가 미술선교를 위한 토양이라면 선교적 작가는 그 토양에서 자란 나무라 할 수 있으며, 미술선교 사역은 선교적 작가의 열매로서 다시 척박한 땅에 뿌려진 씨앗들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미술선교 단체로 한국미술인선교회, 아트미션, 대구기독교미술선교협회의 출현과 활동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단체들의 후원과 협력, 동역을 통해 타문화권에서 사역한 미술선교사들의 현장 사역을 정리하였다.

유럽 F국에 파송되어 작품을 창작과 전시, 설치를 통한 복음전도자의 삶을 살아온 P국제예술포교사의 사역, 현재 I국에서 미술교육을 통해 기독교세계관과 복음을 확산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L선교사의 미술교육 사역을 다루었고, C국에서 체류하면서 미술교육과 문화교류의 장을 지켜가며 벽화사역을 통해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Y선교사의 사역과 유럽 F국에 유학 후 장기간 체류하면서 한국문화와 복음을 전하며 선교단체를 섬기는 K선교사의 사역을 살펴보았다. 그 이외에도 많은 기독교미술선교 활동과 작업, 미술선교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자가 갖는 정보의 한계와 지면의 제한 속에서 충분히 소개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다.

현장 사역의 유형은 크게 1) 작품 창작과 전시 발표를 통한 복음전도, 2) 미술교육을 통한

기독교 문화관과 복음의 확산, 3) 문화교류와 현지의 환경의 개선 등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었다. 미술선교 사역은 무엇보다도 먼저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넘어서서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는 노동을 통해 현지의 사람들과 같이 호흡함으로써 마음을 여는 소통의 힘이 있으며, 사역의 결과물이 현지에 오래 남아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미술선교 사역의 갖는 강점으로 보인다. 반면에 문자와 언어가 갖는 전달의 섬세함이나 설득력의 부족, 지역에 따라서는 시각적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교전략상의 보안 문제 등은 보완되어야 할 약점일 것이다.

본 논고를 통해서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이 갖는 선교적 영향력을 점검하면서 미술선교 단체와 미술선교사의 활동과 사역, 현장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라며 한국 미술선교의 사례들을 정리하여 나감으로써 다음 세대의 미술선교 사역에 교훈과 지침을 마련해 줄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미술선교의 역사와 현장 이해를 넓혀 감으로써 한국선교가 미술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학문적으로는 미술과 선교, 예술과 신학, 문화신학과 선교신학을 접목하고 함께 다루는 융복합적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논고로서 작은 기여가 되었으면 한다. 기독교미술이 갖는 선교사역적 한계, 문제점의 보완 등 미술사역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족함이 있다. 다음의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미술사역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성찰을 통해 미술선교의 방향성을 찾고 정립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병중 외 (1996). **기독교와 미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김영한 (1992). **한국 기독교 문화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7). **한국기독교와 예술**. 서울: 도서출판 풍만.
- 서성록 (2003). **Art & Christ, 꿈꾸는 손-한국의 크리스천 미술가들**.
서울: 미술사랑 .
- (2015). **한국의 현대 기독교 미술, 어제와 오늘.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 50년**.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 손창남 (2014). **문화와 선교**. 서울: 조이선교회.
- 아트미션 (2018). **소망 기억하다 아트미션 20주년 기념집**. 서울: 디자인스튜디오 LOCI.
- 오의석 (2006). **예수 안에서 본 미술**. 서울: 흥성사.
- (2012). **로고스와 이미지, 그 접점에 서다**. 서울: 예서원.

- (2012). 크리스천 작가의 작품 이미지와 사역적 삶의 지평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제 17권 4호. 기독교학문연구회.
- 유명애(2006). 기독교 미술과 선교- 국내외 선교의 실패를 중심으로-. **2006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페스티벌 오픈 포럼**, 크리스천아트페스티벌 운영위원회.
-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1995).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30년사**. 서울: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 이승구 역. (1989). 기독교 문화관, Webber, Robert E.(1979). *The Secular Saint*. 서울: 엠마오.
- Crowther, Paul (1993), *Art and Embodi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érôme Cottin. (2007). *La Mystique de L' Art, Art et Christianisme de 1900 à nos jours*, les Editions Du Cerf, Paris.
- <https://blog.naver.com/msharehappy/221584383334> (검색일 2020. 10. 15)
- <https://blog.naver.com/msharehappy/222068877231> (검색일 2020. 10.15)
- <https://tent-maker.net/tents/11879> (검색일 2020. 8. 11)
- <https://neolook.com/archives/20180918a> (검색일 2020. 10. 15)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에 체현된 선교의식 연구	발표자	오의석
		논찬자 (소속)	서나영 (백석대 외래교수)

본고는 현재 한국의 기독교미술인들의 선교사역을 토대로 하여, 한국 기독교의 선교사역에 도구로 쓰이는 미술사역에 대해 말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씀의 선포와 증언의 도구, 진리의 말씀을 변증하는 도구, 말씀의 세계관을 실천하는 도구로의 사역을 설명하였다.

본고는 세가지의 측면에서 기독교학문에 기여를 했다고 여겨진다.

첫째, 현재 기독교미술인 사역의 실제적인 예를 근거로 논제를 이어 나가, 기독교미술인들의 선교사역의 실질적인 상황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후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한국의 주요선교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논문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는, 기독교미술을 정의함에 집중하지 않고 미술인들의 사역에 집중함으로써 가치 있는 결론을 맺었다.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미술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품고 있는 미술인의 사역을 조명함으로써 기독교미술을 규명함에 있어 그 범위를 넓혔다.

셋째는 현재 미술선교단체와 미술인들의 다양한 사역을 정리함으로써 앞으로 한국교회와 신학에 기독교미술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미술 선교 현장의 이해를 넓혀 이미 널리 쓰임 받고 있는 미술사역을 증명함으로써 미술이 기독교 전파의 중요한 도구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지면의 부족으로 많은 설명이 누락되었으나,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이 시급해 보인다.

(1) 직접적으로 기독교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은 작품들로 사역을 하는 경우, 사역자가 오직 미술인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선교라고 칭하기에는 애매해 보여, 기독교미술 선교의 작품에는 좀 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미술인이 일반적인 (직접적 기독교 내용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미술을 통해 선교지에서 원주민들과 친밀을 쌓아 친밀과 협동을 꾀하여 선교를 할 때, 그 미술 작품 자체를 기독교미술이라 할 수 있는가? 즉, “기독교미술선교”와 “기독교미술인선교”와의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

(2) 미술인 선교 활동 연구 예들이 실제임을 참고할 만한 코테이션이 필요해 보인다.

(3) 영상 예술 또한 말이 안 통하는 선교지에서 이미지의 연속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용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데, 시각예술선교만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기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고가 선교현장 뿐 아니라 한국의 교회와 신학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속히 후속연구들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제37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국립목포대학교
----------------------	---------